

석화·철강→에코 산단 ‘대전환 메가프로젝트’ 기대감



새 정부 지역공약 이젠 실천 나서야

〈4〉 전남의 미래산업

전남 산업계가 주요 산업의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.

기간사업으로 분류되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 금껏 전남 경제를 지탱해왔던 주요 산업들이 대내 외적인 불확실성으로 경쟁력을 잃으면서 탄소중 립이 가능한 신사업으로 전환이 가시화 되고 있어 서다.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이 대통령이 후 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 전남의 산업 대전환을 약 속했기 때문에 전남의 산업기반 변화에 대한 기대 감이 크다.

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 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%지 만 최근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 록하는 등 집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.

곳곳에서 공장 매각 및 가동 중단 소식이 들려오 고 있다. 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지역 경제는 위청이 고 있다. 최근 여수시가 ‘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’으 로 지정된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다.

전남도는 두 산업은 대전환이 필요한 상태로 진 단, 이번 대선 공약에 이른바 ‘대전환 메가 프로젝 트’라는 이름으로 각 대선 후보에 중점과제로 제 출했다.

메가 프로젝트는 에코산단 조성,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으로 전환이 핵심이다.

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특별법도 필요한데,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수 석화산업과 철강 등 기반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 속했다.

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경쟁력 회복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특별법 제정을 물론 최소한의 기반 마련만큼은 이 뢰져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열망이다.

해남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에 글로벌 AI슈퍼클러

석유화학·철강 경쟁력 약화 이 대통령 특별법 제정 약속 솔라시도에 AI슈퍼클러스터 에너지고속도로 임기 내 추진을

스터 허브 조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추진돼야 한다.

전남은 AI 클러스터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. 넓은 땅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풍부한 전력, 안정적 인 용수 공급, 지진 안전성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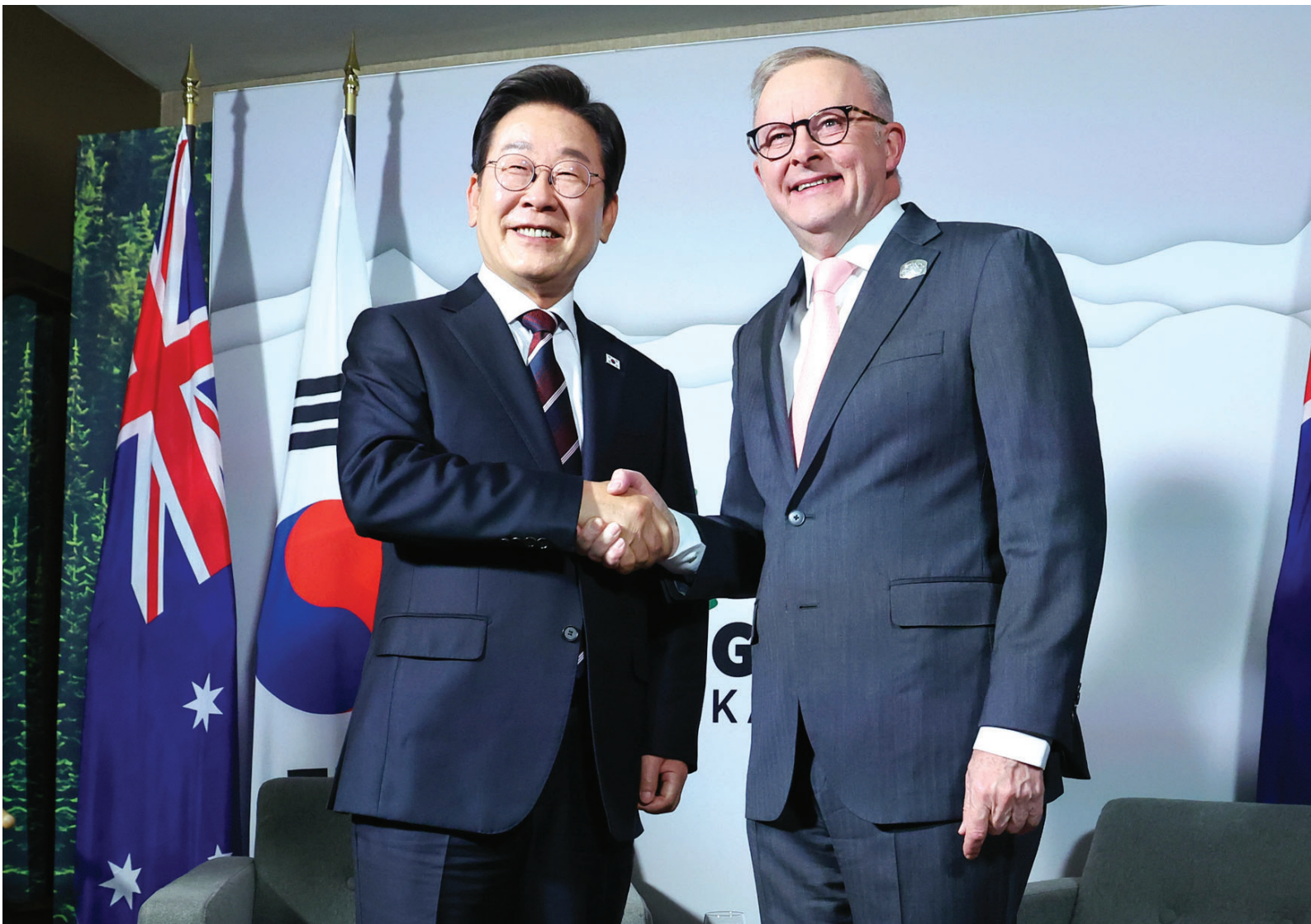
AI 클러스터 구축은 도내 경제상황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도 가능한 신사업이다. AI 클러스터 구축에 동반되어야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력 판매 수익을 분배하는 ‘에 너지 기본소득’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.

해남 산이면에 조성 중인 기업도시 ‘솔라시도’ 는 AI 시대 전남의 산업을 이끌어갈 대표 사례로 꼽힌다.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5조 원을 들여 솔라시도 내에 3GW(기가와트) 급 AI 데이터센터와 ESS시스템, 기반 인프라 구축을 목 표로 하고 있다.

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“우리나라는 서남해 안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”라며 “광주·전남은 재 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살길을 만들어야 한다”고 밝힌 만큼 솔라시도 AI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.

전남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도 동반되어야 한 다. 전남에서 생산,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을 보낼 수 있다. 현재 전남 재생에 너지가 발전량만큼 생산하지 못하는 건 역시 계통 포화 때문으로,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향하는 초광 역선로를 구축한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가 능해진다.

특히 국가 첨단산업에 ‘RE100’ 전력이 공급된 다면 국가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어 솔라시도와 에 너지고속도로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 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

한·호주 정상회담 51차 주요 7개국(G7)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(현지시간)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 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한·호주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중동 사태에 무산된 이재명·트럼프 첫 정상회담 호주·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순조롭게 진행

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의 여파가 첫 한미 정상회담의 무산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 서 한미 정상외교가 첫발을 내딛으려는 찰나 브레 이크가 걸린 모습이다.

이재명 대통령은 16~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 서 열리는 주요 7개국(G7)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 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을 계기로 G7 회원국인 미 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했다.

‘국의 중심 실용 외교’를 앞세워 첫 정상외교 무 대 데뷔전에 나선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이를 차인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사실상 확정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캘거리에 도착해 시릴 라 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에 이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순조롭게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.

하지만 같은 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G7 일정을 뒤로 하고 이날 밤 귀국한다는 소식이 미국

백악관발로 갑작스레 전해졌다.

이날 G7 회원국 가운데 캐나다와 영국, 일본, 유럽연합(EU)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중단하고 전격 국내 복귀 를 결정한 것이다.

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(현지시간) 오후 캘 거리 시내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와 정상회담을 가졌다.

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이 대 통령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국방·방산, 청 정에너지,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 다.

앨버니지 총리는 “곧 6·25 75주년인 것으로 안 다. 6·25 전쟁에서 호주 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 게 싸웠다”며 “경제협력 관계도 두텁게 가져가고 있다. 방산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 력을 해오고 있으며,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·자원 공급 국가”라고 강조했다.

이 대통령은 “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, 그 덕으로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 다”며 “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, 앞으 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.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 있어 호주의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”고 말했다.

이 대통령은 같은날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.

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 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, 교육·투자·에너 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 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 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.

이 대통령은 특히 “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”이라고 평가했고, 남아공 내 에너지·제조업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.

라마포사 대통령은 “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 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”며 “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 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/연합뉴스

“민생지원금 보편·선별 섞는 게 어떨겠나”

이재명 대통령 기내 회견

이재명 대통령은 16일(현지시간) 김민석 국무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 등에 대해 “정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”이라 고 말했다.

주요 7개국(G7) 회의 참석차 출국한 이 대통령 은 이날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갖고서 ‘김 총리 후보자나 이한주 국정 기획위원장의 신상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느냐’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.

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는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‘보편 지원’과 ‘선별 지원·차등

지원’을 혼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 을 내비쳤다.

이 대통령은 우선 “추경 편성(에 따른 민생지원 금 지급이) 소비 진작 정책이나 소득 지원 정책이 나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다”며 “소비진작 측면이 강하다면,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. (이 경우에는) 동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당연 히 맞다”고 말했다.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“한편 으로는 서민들의 살림이 너무 어렵다. 소득지원 측 면을 강조하면 (생활이)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”며 보편 지원뿐 아니라 선별·차등 지 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. /연합뉴스

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!

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

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
개인당 **2천만원** 까지 완전 비과세

광주문화신탁



자산규모
1조 5천억원

창립 이후
30년 연속 흑자경영

복지장학재단 운영

당기순이익의
9% 이상 지역사회 환원



광주문화신탁
대표번호 1644-7990

· 본 점 · 여신사업부 · 양산지점 · 운암지점 · 매곡지점 · 첨단지점 · 동광주지점 · 문흥지점 · 동림지점 · 각화지점